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1994. 10

鄭永泰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과 관련하여 최대의 관심사항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여부다. 김정일은 과연 순조롭게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권력기반은 과연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질 못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을 발표한 이후 김정일의 權力承繼와 관련하여 그 당위성만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몇 불연속적인 징후들을 중심으로 각각 상이한 추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결과 우리는 김일성 사망 이후 지금까지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 승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신빙성 있는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에 대한 歷史的·構造的 측면의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北韓軍部를 김정일이 어떻게 장악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김정일 權力基盤의 안

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확보노력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의 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북한의 군사관련 자료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 귀순자의 증언에 많이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북한의 고위관리를 지낸바 있는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은 공식자료에서 규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의 최강 박사님은 바쁘신 가운데도 본 연구 내용을 세심하게 읽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陰陽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感謝를 표하고자 한다.

1994. 10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확보 여부는 향후 김정일 권력승계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變數이다. 그것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확보 상황에 따라 김일성 없는 북한 군대가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어떻게 군사지도권을 확보하면서 그의 軍事權力基盤을 다져왔는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향후 북한 체제변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변화방향을 전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이 그의 권력기반의 주요한 부문인 軍指導權 확보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分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 北韓軍隊의 特性

북한군대의 機能的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혁명무장력의 군대라는 측면과 당과 수령을 위한 군대라는 측면이다. 혁명무장력으로서의 군대는 김일성 정권의 정치적 목적(남조선해방)을 실현키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군은 수령·당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종속적이며 복종적인 특수집단이다. 항일무장유격대의 후계자는 북한 인민군이며, 김일성은 무장유격대의 지도자임과 동시에 이를 발전시켜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 자신의 군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에게 충심으로 복종하고 수령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洗腦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당조직을 통하여 인민군을 통제·감시하고 중요한 군사사항의 결정에 당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군부의 黨 또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적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軍內 黨優位의 黨·軍二元化 體系를 유지하여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정권의 安定을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II. 김정일 軍事指導權 形成過程

김정일은 1970년대 이전에 이미 軍에 대한 黨的 統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도활동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대 이전 김정일의 군사부문 활동은 권력승계를 위한 학습의 일환으로 김일성의 특별한 배려하에 그의 현지도도 시 병행되어 이루어져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의 통제 및 장악 활동을 본격화해 나감과 동시에 군사부문에 대하여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조선노동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 1974년 당 정치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부터라고 생각된다. 그 영향력의 주요한 지주로는 군내의 당 지도기구 및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大衆運動을 들 수 있다.

1980년 10월 10~14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 오진우에 이어 서열 3위(1989년 9월에는 서열 2위로 부상)로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됨으로써 북한의 一切의 武力에 대한 통수권자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군사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일은 당조직 비서로서 이제까지 군의 당정치기관을 통해서 주로 군사지도권을 행사해오다가 당중앙 위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군사행정 지휘계통 관련 지도권을 추가하게 되었고, 그의 군사부문 지도권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은 그의 군사부문 지도권 공고화 노력 차원에서 1982년부터 군부내(무력부, 군단, 사단)에 그의 친위대·후비대인 3대혁명소조원을 파견하여 군부의 사상동향 감시 및 군내부의 지지기반 구축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왔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은 그의 영도하에 軍의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全軍을 유일사상체계하에 혁명전력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군내에서의 그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김정일은 인민군최고사령관(1991), 원수(1992), 국방위원회 위원장(1993) 등 군사고유의 지도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Ⅲ. 北韓의 軍事權力機關과 김정일의 指導權 確保에 대한 分析 및 評價

1.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는 非常時와 戰時 등과 같은 특수상황시에 군사부문의 최고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곧 위원장(김정일이 승계할 전망이다)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진우, 최광, 백학림, 이을설, 이두익, 조명록 등의 당중앙위 군사위원들은 원수·차수급으로 김일성과 같이 항일유격대 출신의 혁명 1세대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항일무장투쟁과정을 김일성의 보호와 지휘 아래 보냈으며 해방 후에도 김일성의 특별한 관심 아래 군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 최대의 忠誠心을 가지고 있다.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정권기구 차원에서 군사부문의 최고 首位機關이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된다(헌법 제3절 제112조). 현재 위원장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제1부위원장에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부위원장에는 최광 총참모장이 각각 맡고 있으며, 위원들로는 김철만,

이을설, 김봉을, 전병호, 이하일, 김광진 등이 있다. 오진우, 최광, 김철만, 이을설, 김봉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혁명 2세대의 김정일 측근 인물들이다. 이와 같이 국방위원회 역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혁명 1세대를 主軸으로 하면서 동시에 김정일의 친위세력을 포진시켜 相互牽制하면서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 최고사령부

戰時의 軍令權 행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고사령부는 국방위원회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동격으로 병립하고 있으며 法定機關이 아니다.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推戴되었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부사령관이기 때문에 최고사령부는 사실상 인민무력부보다 우월한 實權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고사령부의 총사령관인 김정일은 인민무력부를 경유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하여 全軍을 지휘하게 된다. 동시에 그는 인민무력부 소속이 아닌 인민경비대(사회안전부)와 민간무력인 노농적위대(당비서국 민방위부), 붉은청년근위대(당비서국 군사부)까지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부터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

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북한헌법의 수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格上改編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서 국방위원회의 직속기관이 되어 있다. 인민무력부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부장 1인과 그 밑에 11명의 부부장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부장 오진우(원수) 외에 부부장으로 는 김광진(차수), 김봉을(차수), 이병욱(대장), 정창렬(상장), 김정각(상장) 등만이 밝혀지고 있다. 인민무력부의 구성상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總參謀部와 總政治局이다. 총참모부는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의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최고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 총참모부는 총참모장 아래 여러 명의 副總參謀長을 두고 있는데 현재 총참모장은 혁명 1세대인 최광(차수)이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은 군의 당정치사업을 하면서 군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同 정치기관은 중앙당 조직지도1부 제13과(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지도과)로부터 直接指揮를 받는다. 따라서 軍總政治局은 직제상 인민무력부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조직지도부 산하 군사부문의 당조직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軍總政治局은 군종사령부, 집단군사령부, 군단·사단·연대·대대에 정치부를 두고 있으며 중대급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군내 정치사업을 통한 군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軍總政治局은 총참모부뿐만 아니라 인민무력부 자체 및 직속기관들에 대

한 黨政 指導도 겸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비서로 있는 김정일이 조직지도부 계선을 통하여 軍總政治局을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총정치국장은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가 맡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인민무력부 외에도 김정일 정권 保衛관련 3대 무력기관(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호위총국)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자신이 首長職을 맡아(국가안전보위부) 직접 통제하거나 아니면 당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장악해(사회안전부, 호위총국) 온 것으로 판단된다.

IV. 김정일에 대한 軍의 忠誠誘導

김정일의 실질적인 군사관련 經歷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취약성은 그의 군사지도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가 됨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북한 당국은 김정일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 무력」 繼承者로서의 正當性을 강조해 왔으며, 일찍부터 김정일의 군지도자적 자질을 과장·선전해 왔다.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군지도자상과 관련한 이러한 과장선전 활동은 그가 군최

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부터 점차 강화되었다. 또한 군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김정일은 군 실무지도활동을 강화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을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김정일의 직접적인 명령과 지시에 의해 軍의 士氣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① 군원로들의 대거 승진 명령, ② 상훈제정 및 수여, ③ 군최고사령관 김정일 명의의 「친필서한」 전달, ④ 「군민일치 운동」 전개 등이 있다.

V. 結 論

이상에서 김정일의 군사부문 권력기반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정일의 군사부문 지도권 形成過程과 軍事權力機關의 樣相, 이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권 확보상황 및 이러한 군사부문 지도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드러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은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정적 특성을 지녔다고 해서 그의 군사지도권이 반석같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군사권력을 지탱해오는 권력기관간의 충성경쟁으로 인한 알력이 불거져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不安定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김정일이 향후 중대한 軍政策의 실책을 거듭 범하게 됨으로써 군사지도자로서의 무능을 노정시킬 경우 이는 군부자체의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김정일 군사권력기반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사지도권 행사 자체를 마비시키는 북한의 군사권력체계의 기능정지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北韓 軍隊의 特性	6
1. 機能的 側面	6
가. 政治目的 實現道具: 革命武裝力	7
나. 김일성 政權 強化機構: 首領·黨의 軍隊	10
2. 統制的 側面: 黨에 의한 軍統制	14
第 III 章 김정일의 軍事部門 指導權 掌握過程	23
1. 1960~1970年代: 造成期	23
2. 1980年代: 強化期	30
3. 1990年代: 完了期	34
第 IV 章 北韓의 軍事權力機關과 김정일의 指導權 確保에 대한 分析 및 評價	38
1. 당중앙군사위원회	39
2. 국방위원회	42

가. 최고사령부.....	45
나. 인민무력부.....	46
3. 정권보위 관련 3대 무력기관.....	50
가. 국가안전보위부	50
나. 사회안전부.....	52
다. 호위총국.....	54
第 V 章 김정일의 軍事部門 指導權 正當化와	
軍의 忠誠誘導	58
1. 軍事部門 指導權 正當化	59
가. 「주체의 혁명무력」 繼承者로서의 正當性.....	59
나. 軍指導者로서의 김정일 資質宣傳	63
다. 김정일의 軍 實務指導 活動強化	68
2. 軍의 忠誠誘導를 위한 諸 活動	71
가. 軍의 士氣振作策 強化	71
나. 김정일에 대한 軍의 支持決意大會 및	
김정일 忠誠軍歌 補給	78
第 VI 章 結 論.....	82
參考文獻.....	87

第 I 章 序 論

북한은 한결같이 그들의 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라 지칭해 왔다. 이는 정치권력적으로 북한 인민군의 지위와 역할이 수령 또는 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종속적이고 수동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북한군대는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해왔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혁명’을 추구해온 조선노동당의 중요한 무력적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군대는 정치적 참여범위가 넓으며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軍을 철저히 수령 즉 김일성 자신에게 예속시켜 唯一支配政權을 공고화하기 위한 ‘前衛隊’로 만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은 자신의 正統性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으면서 군대에 무장유격대의 후계자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켜왔다. 그는 자신이 항일무장유격대의 지도자였음을 밝히고 북한군대를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그의 정권 공고화를 위한 군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해 왔고, 동시에 軍을 고위급 정치지도자의 주요한 공급원¹⁾으로도 이용해

1) 북한에서 노동당 제4차대회까지는 현역 군수뇌층 중에서 노동당 정치위원 및 정치국 정위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並進政策을 결정한 1966년 10월 노동당대표자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개편에서는 민족보위상 김창봉이 정치국

왔다.

그런데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김일성 시대에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代를 이어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軍의 충성하는 전통도 代를 이어 계속해야함을 밝혔다. 즉 북한군은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는 충성을 김정일에게도 바쳐서 父子世襲體制를 이룩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후계체제 준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은 김정일을 당비서로 기용하여 黨權을 장악토록 하고, 그가 「3대혁명소조운동」과 같은 大衆運動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권력기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대내외적으로 공식 후계자임이 확인된 것은 1980년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序列 4위의 정치국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라는 중요한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黨 군사위원회 서열 3위의 위원이라는 군사적 지위까지 획득하였다. 현재 김정일은 군사부문에 있어서 인민군최고사령관(1991), 원수(1992), 국방위원회 위원장(1993)으로 추대됨으로써 군통수상의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

정위원 15명 가운데 서열 12위로 들어가고,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민족보위부장 오진우가 각각 정치국 후보위원이 됨으로써 軍의 정치적 참여가 시작되었다.

인다.

그런데 김정일이 이러한 군사적 직무를 전면 移讓받았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지도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특정 조직·기구에 대한 개인의 지도권이라는 것은 그와 관련한 직무를 맡는 것만으로 확립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사지도권이 확립하려면 제도적인 군사직무(직위)만이 아니라 군내부의 친위세력 구축, 군전체에 대한 권위의 강화, 군내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실적의 축적 등 다양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면 김정일은 그의 軍事權力基盤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군사지도권 확보를 위하여 언제부터,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지도권의 狀況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확보 여부는 향후 김정일 권력승계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것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확보 상황에 따라 김일성없는 북한 군대가 김정일 체제를 擁護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어떻게 군사지도권을 확보하면서 그의 군사권력기반을 다져왔는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향후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변화방향을 전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이 군사권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軍指導權 확보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그 상

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 김정일의 군사적 권력기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군사 최고지도부라는 틀을 구성하고 있는 군부 개개 엘리트의 관련 사항에만 착안하여 그들의 인간관계 및 권력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엘리트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김정일의 군사적 권력기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공개자료의 빈곤으로 인하여 연구의 많은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또한 군최고지도부의 권력관계 규명에만 한정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에 관하여 歷史的이며 構造的인 接近方法을 사용할 것이다. 군사권력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각 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권 확보 노력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의 特性과 그 安定性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북한의 공식문헌 및 발표자료 등이 주로 이용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 귀순자들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해나가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수령,’ ‘당’ 및 혁명무장력으로서의 북한군과 黨·軍 二元化 체계를 가진 북한군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제Ⅱ장). 이어서

김정일이 북한군 장악을 위한 지도권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시켜 왔는가를 歴史的 觀點에서 조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김정일 군사지도권의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권력기관 현황과 그 지도권의 확보상황은 어떠한가(제Ⅲ장), 이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 왔는가(제Ⅳ장)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을 종합하면서 김정일 군사권력기반의 특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제Ⅴ장).

第 II 章 北韓 軍隊의 特性

1. 機能的 側面

북한의 노동당규약에서는 북한군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 7장 46조)이며,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당규약 서문)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인민군은 黨의 軍隊라는 특성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당규약 서문)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북한군은 黨의 軍隊를 초월하여 김일성 수령 개인의 군대 즉 김일성 私兵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군대는 김일성 정권의 ‘남조선 혁명’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革命武裝力으로서, 黨의 首位 및 首領으로 통칭되는 김일성의 정권 강화수단으로서 각각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政治目的 實現道具: 革命武裝力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을 통한 敎示²⁾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가지는 또하나의 특성은 이 군대가 과거 일제의 가혹한 탄압 밑에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온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었다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인민군대가 북한의 정규군대로서 창건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 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 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런 군대”임을 밝혔다.

북한에 의하면 인민군의 이러한 革命傳統은 조선의 모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고 민족의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로동신문」 社說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앞당긴다는 무겁고도 영광스런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전동포의 일치된 염원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지체될 수 없는 최우선의 또한 최대의 민족과제인 것이다...³⁾

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189~90.

3) 「로동신문」, 1980.4.24.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인민의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동분자와 착취계급의 역할 및 제국주의의 도발을 혁명적 무력으로서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즉 조선인민군의 역할은 혁명과업의 성취를 무력으로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모든 혁명을 성취하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인민군은 당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武力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인민군에 「혁명전통교양」 학습을 끊임없이 강조해 오고 있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 대회(1977.11.30)에서의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우리는 인민군군인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일혁명 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혁명선열들과 영웅전사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의 피를 흘리고 귀중한 목숨까지 바쳐 싸웠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을 똑똑히 깨닫고 혁명 선열들처럼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건결히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⁵⁾

4) 「근로자」 (1977.6), p. 36.

5)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

결국 북한의 인민군대는 首領·黨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인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이라는 것은 무력에 의해 한반도 적화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김일성의 정권확장의 야망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민족해방투쟁을 政權爭取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에서 명백히하고 있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⁶⁾

따라서 북한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도 김일성의 한반도 全域으로의 정권확장을 위한 무력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은 그의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기구로서 인민군을 강화·발전시켜왔다. 북한은 군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과업으로 군의 조직·사상적 강화, 군사기술의 과학화, 현대화 및 군의 대집단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1960년대 말부터 전인민의

판사, 1986), p. 514.

6) 「조국통일」, 1968.2.28.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및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군사노선으로 집약되었다. 북한은 金父子와 당에 충실한 자들을 군의 골간으로 하여 군을 育成·強化해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인민군은 수령·당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從屬的이며 服從的인 特殊集團으로 인식되어 왔다.

나. 김일성 政權의 強化機構: 首領·黨의 軍隊

1980년 4월 25일자 「로동신문」의 사설에서 북한은 “항일 혁명의 불꽃속에서 태어난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군대이며 김일성 동지의 군대”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군은 끊임 없이 당의 군사노선에 입각해 조직·사상화에 힘써왔다. 이것은 곧 金父子의 個人軍으로서 당의 무장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를 다져왔다. 따라서 군조직 내에는 당조직이 병행해 있으며 당조직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당을 통한 군의 조직화 만으로 군을 완전한 수령의 군으로 만들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상적 무장화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꾸준히 강요되어왔다.

북한 인민군은 “그 창건도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실현되고 그 강화발전도 수령의 령도밑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모든 승리와 영광도 수령의 품속에서 마련”⁷⁾되었다는 것이다. 무장유격대의 후계자는 북한 인민군이며, 김일성은 무장유격대

의 지도자임과 동시에 이를 발전시켜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 자신의 군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에게 충심으로 복종하고 수령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洗腦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한의 「로동신문」 社說⁷⁾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군대이자 김일성 동지의 군대이다. ...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인민군은 위대하신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영명한 지휘하에 크게 발전하였다. ...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영광된 자취를 자랑스럽게 회고하며 우리 인민군의 모든 장교 및 사병들은 우리의 혁명군대를 창건하고 이를 필승의 무적군대로 키워 오신 존경스럽고 경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에게 따뜻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또한 「근로자」紙에서는 인민군대의 역할이 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忠誠에 있음을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항일혁명계릴라 군대의 모든 계급의 전사들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적 의무, 즉 지도자를 위해서는 청춘과 인생을 주저없이 바친다는 ‘자연적 이성’과 ‘혁명적 의무’로 가득차 있었다. 항일계릴라군의 전사들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가장 숭고한 책임을 졌던 것이다. 그들이 이와같이 짊어진 혁명적 책무는 위대하신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실현되고 강화된

7) 「로동신문」, 1991.12.28.

8) 「로동신문」, 1980.4.24.

것이였다. 정확히 말하여 책임은 그들이 지니는 혁명과업의 고유한 성격을 구성하는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완수되었다는 것이다.⁹⁾

북한은 그들의 인민군대로 하여금 당과 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충성 및 절대적 복종, 자발적 희생정신, 혁명적 동포애와 계급투쟁의식 등을 부추켜 왔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민군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威信과 地位를 부여해 왔다. 김일성은 인민군대를 가리켜 “인민의 혁명교육을 위한 교과서들”¹⁰⁾이라고까지 말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사회적 위신을 높여주었다. 사실상 북한은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軍을 경쟁적 모방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입시켜 왔다. 북한은 「인민교육」紙를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의 군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조선인민군이 보여준 애국의 標本을 더욱 충실히 본받도록 교육되어야 한다”¹¹⁾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인민군을 사랑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의 혁명정신, 전투 경험 및 업적을 학생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해야함을 의미한다. 나

9) 「근로자」 (1977.5).

1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04.

11) 「인민교육」 (1967.2), p. 2.

아가서 이는 조선인민군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적극적 지지를 지니며 비상사태시 당의 전사로서 조선인민군을 기꺼이 따라 나서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당과 지도자에게 끝없이 충성스러운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 피한방울까지도 바쳐 싸우도록 함을 의미한다.¹²⁾

이렇게 볼 때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 개인을 위한 私兵과도 같은 존재로서 그 역할은 수령에 대해 종속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¹³⁾ 즉 북한 인민군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이고 김일성주의(주체사상)의 보호자이며,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무력집단으로서 김일성 정권의 기반을 강화해 주고 있는 核心要素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철저한 성분조사를 통하여 아주 선택적으로 군대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결과 북한 인민군은 스스로 당과 김일성의 혁명과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며 사상적으로 인정을 받은 집단이라는 우월감을 가짐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최대한의 충성을 바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민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유도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 왔다. 즉 북한은 당조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군을 철저하게 통제

12) 「인민교육」(1967.11), p. 29.

13)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 397.

하는 소위 軍內 ‘黨·軍 二元化 體系’로 발전시켜왔다.

2. 統制的 側面: 黨에 의한 軍統制

김일성의 일인독재지배정권을 維持 및 擴大해 나가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리적 힘을 구비하고 있는 군부세력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일찍부터 軍部에 대한 효율적인 정치적 統制 組織을 강화해 왔다. 즉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1980.10.15)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무장력”이며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47조)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인민군대에 대한 黨의 철저한 통제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김일성 자신도 “인민군대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군대”¹⁴⁾라고 ‘교시’하였다.

黨에 의한 軍의 통제 원칙은 舊蘇聯을 위시한 他 공산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레닌이 “군사적 견해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야 한다”¹⁵⁾고

1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 p. 71.

15) 북한문제연구소 편, 「북한정치」(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79),

한 것과, 중국의 모택동이 “당이 총포를 지배하는 것이지 총포가 당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¹⁶⁾고 한 주장은 군에 대한 당의 철저한 통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일성 역시도 인민군대에 있어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가 앞세우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부대의 전투성과가 결정됩니다. 정치사업을 잘하는 부대는 모든 군인들이 자기의 임무를 똑똑히 알고 사기왕성하여 용감하게 잘 싸우며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하지 않는 부대는 전투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¹⁷⁾라고 함으로써 북한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인민군 내에 黨規約에 의거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정점으로 하는 당중앙위 직속 당조직과 정치기관을 말단 분대에까지 배치해 軍을 통제해 오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군대내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민군 당위원회가 북한군 내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인민군 당위원회는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력량을 합리적

p. 227.

16) 위의 책, p. 227.

17)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513.

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당규약 제4장 33조)하며, “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당규약 제7장 47조)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군내 인민군 당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당조직(군단 당위원회, 사단 당위원회, 연대 당위원회, 대대 초급당위원회, 중대세포 당위원회 등)은 다음과 같은 주요 機能을 수행한다.

- ① 전군의 주체사상으로의 교양
- ② 군대내 당의 유일사상체계 공고히 확립
- ③ 간부대열 강화, 간부후비대 육성, 이들의 당성을 끊임 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 조직, 지도 및 당대열의 확대 및 강화
- ④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 강화 및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한 당두리에로의 결속¹⁸⁾

그런데 인민군대 내의 각급 당위원회들은 해당 軍單位 정치지휘체계 부문의 책임자와 군사행정지휘체계 부문의 책임

18) 「조선로동당 규약」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8조 참조.

자로 구성되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다(도표 1 참조). 그렇지만 해당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군대 내의 해당 정치지휘체계 부문 政治委員들의 임무이다.¹⁹⁾ 따라서 인민군대내 각급당위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바로 군내 정치기관의 정치위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군내 정치기관은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당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組織되는데(당규약 제8장 51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군단·사단·연대·대대·중대정치부가 그것이다. 인민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이들 정치기관은 인민군들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수행하며 軍內 해당 당위원회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당규약 제8장 51조).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직속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당규약 제8장 52조).

이러한 인민군내 당 및 정치기관은 군사지휘체통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別個 指揮系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군지휘관의 명령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 군내 정치기관 조직의 비준과 서명을 필요로 한다. 정치위원은 군지휘관이 당정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저지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군내 정치기관은 군지휘기

1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64.

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²⁰⁾ 金父子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민군을 통제·유도해 나가는 임무를 띠고 있기도 하다. 김정일은²¹⁾ “정치위원은 부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하며 “부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정치위원의 첫째가는 임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정치위원은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하며 이 사업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대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해당 부대 내에서 정치위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이 다음과 같이 밝힌 사실에서 군내 정치위원들이 군지휘관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당

20) 김정일은 “정치위원은 해당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입니다. 군사지휘관이 부대를 군사적으로 책임진다면 정치위원은 부대를 정치적으로, 당적으로 책임집니다. 정치위원이 군사지휘관보다 군사칭호는 좀 낮을 수 있으나 사업을 책임지는데서는 군사지휘관과 같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2」, p. 463. 그러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당의 우위가 인정되는 북한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부대의 당의 대표인 정치위원의 권한은 군사지휘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우위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1)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2」, pp. 463~64.

에 의한 군부통제체제 유지라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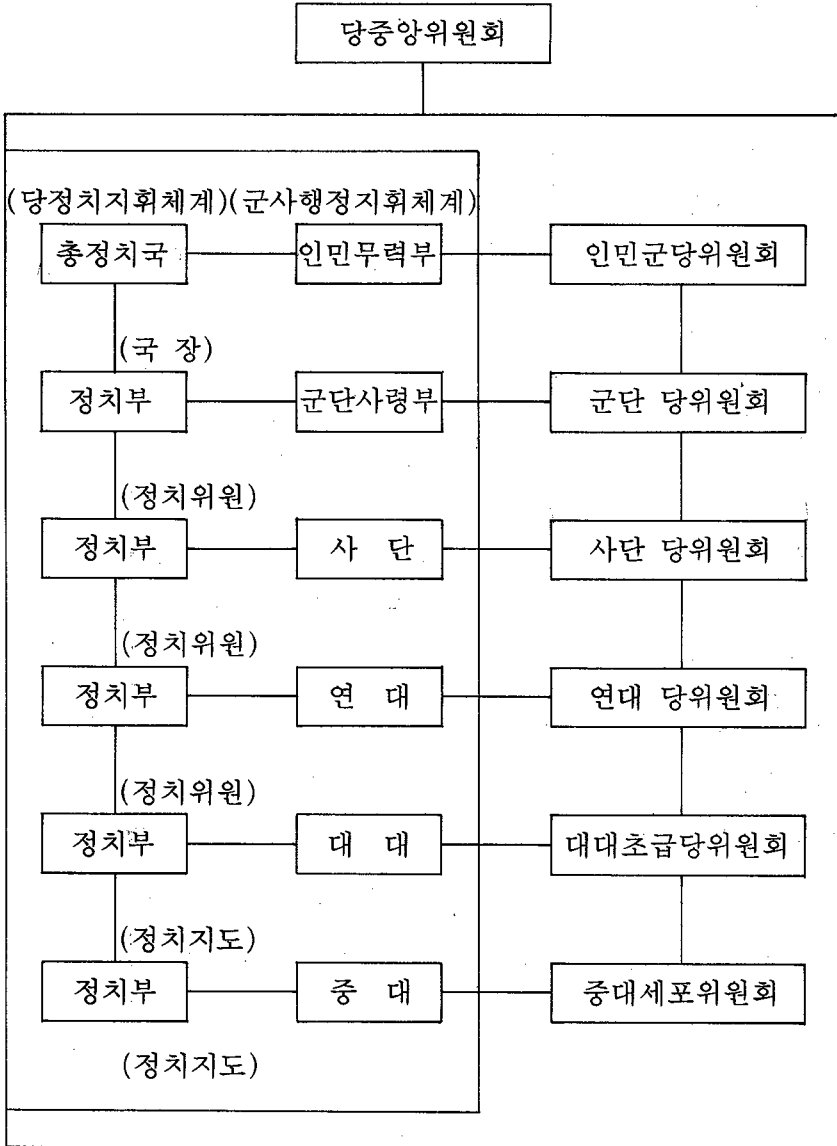
정치위원은 당위원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합니다. ...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전에는 지휘관들이 제기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별관료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관철에 엄청난 해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군별관료주의자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위원은 군사사업, 정치사업, 후방사업을 비롯하여 부대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부서들과 지휘성원들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²²⁾

북한은 중대정치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정치일군들이 그들 스스로 이러한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忠誠心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북한은 이들 정치일군들이 軍을 “당의 군사노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참다운 충신, 효자들로 더욱 튼튼히 키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배타적인 통제권한과 임무를 부여해 왔다.²³⁾ 동시에 정치위원이 되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에 의

22) 위의 책, p. 464.

23) 「로동신문」, 1991.12.25.

〈도표 1〉 北韓 軍隊内の 政治機構



한 것임을 강조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金父子 唯一支配體制 유지를 위해 충성하도록 유도해 오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당의 군통제를 보강하기 위한 또 다른 통제가 바로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라는 청년조직에 의한 것이다. 군내의 사로청조직은 군내 당조직체계와 같으며 각급조직들은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²⁴⁾ 사실상 군내의 사로청 조직은 군내의 非黨員을 당의 지도 밑에 구속하기 위한 조직이며 모든 군인의 일상생활을 열성당원의 행동으로 강화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사로청 조직은 군내 당조직들의 지도하에 있는 청년 政治·軍事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당조직을 통하여 인민군을 통제·감시하고 중요한 군사사항의 결정에 당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군부의 黨 또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적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軍內 黨優位의 黨·軍 二元化 體系를 유지하여 김일성·김정일

24) 북한 인민군 내 각급 당조직은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조선로동당 규약」 제7장 48조)고 되어 있다.

유일지배정권의 安定²⁵⁾을 도모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콜튼(Timothy J. Colton)은 舊蘇聯에서의 黨·軍關係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세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당과 군대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적대관계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에 위협이 된다. 둘째, 당과 군이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 셋째, 군부와 민간엘리트 간에 어느 측도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지 않으나 양자가 당의 주권적 권위를 공히 인정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첫번째 모델의 경우 군부는 당의 통제를 둔화시키고 군의 직업적 자율권, 군에 대한 존경과 막대한 국가예산의 획득을 기도하는 반면, 당은 군이 당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세력으로 보고 정치적 사상주입과 경찰 등 사찰기관의 감시체도를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모델의 경우 당과 군의 엘리트간에 때때로 의견 차이가 생기지만 이는 큰 테두리에서의 실용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전문적 기질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태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부와 민간인 당료들간의 당료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양자가 그들의 공동목표 추구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세번째 모델의 경우 군관리들은 정치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권력배분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흥정에 적극 참여하며 그들의 직업적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군사적인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군에 대한 당의 엄격한 통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콜코로즈(Roman Kolkowloz)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의 당·군관계를 불안정한 관계로 특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한에 있어서 군의 당직 참여 정도, 당에 대한 충성, 당사업에의 적극 참여 정도 그리고 군에 대한 당의 효과적인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당·군관계는 불안정한 관계가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로서 이는 김일성 정권의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경준, “북한외교에 있어 군의 역할,” 『북한학보』, 제16집(1992), pp. 52~53 참조.

第Ⅲ章 김정일의 軍事部門 指導權 掌握過程

북한 인민군은 ‘혁명무장력’이며, 혁명의 지도자임과 동시에 黨의 首位인 김일성 ‘수령’의 군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민군은 김일성 일인지배정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충성을 맹세해 오고 있으며 軍의 이러한 충성확인인 黨組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군은 당조직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김정일은 당중앙위 조직비서로서 당 장악을 통한 군통제권과 군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으로 실질적인 북한군의 총지휘권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은 실질적인 군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분야의 최고지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김정일이 실질적인 군경력을 쌓는 대신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최고군사지도권을 확보하여 인민군을 총지휘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형성과정을 歷史的 觀點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1960~1970年代: 造成期

이제까지 공표된 범위에서 볼 때 김정일은 同 期間 동안

군사와 관련한 어떠한 직책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1970년도 이전에 이미 軍에 대한 당적 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도활동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1964년 10월 18일 조선인민군 제855군부대 일군들과 한 「비행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라는 담화, 1968년 3월 13일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政治副中大將과 한 「정치부중대장의 임무」라는 담화, 그리고 1969년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라는 담화²⁶⁾ 등은 김정일의 군내 당적 지도활동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1970년대 이전 김정일의 군사부문 활동은 權力承繼를 위한 학습의 일환으로 김일성의 특별한 배려하에 그의 현지지도시 병행되어 이루어져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의 통제 및 장악 활동을 본격화해 나감과 동시에 군사부문에 대하여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조선노동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 1974년 당 정치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부터라고 생각된다. 그 영향력의 주요한 지주로는 군내의 당 지도기구 및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大衆運動을 들 수 있다.

26)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38~44, 334~39, 415~25.

먼저 組織的 次元에서 보면 김정일은 인민군대내 당 지도 기구인 정치부계통을 중심으로 그의 군사지도권을 확보해 나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어서 인민군대의 통제는 당의 정치조직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인민군대내 당조직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黨機關紙 「로동신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956년 4월부터 1961년 9월까지 군대내 정치기관과 당조직을 일체 재정비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黨的 指導를 강화하였다고 한다.²⁷⁾ 1969년까지 하더라도 연대까지만 정치부가 있었으나 1969년 이후 당 및 정치기관이 보다 강화되어 말단 중대까지 정치부 계통의 요원이 파견되었다.²⁸⁾ 일반적으로 인민군의 정치부 계통은 정치사상 교양 및 사기와 장교(군관)들의 인력 및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즉 군대내 당 및 사로청 조직과 사상교양을 위한 선전선동사업, 붉은기 중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등 사기대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장교들의 보직, 보충, 이동, 승급, 제대 등의 처리와 기록 보고 등이 정치부 계통의 主任務이다. 인민군의 정치부 계통은 인민무력부 총정

27) 「로동신문」, 1961.9.15.

28) 인민무력부에는 총정치국이, 군단에서 연대까지는 정치위원이, 중대 이하에는 정치지도원이라는 정치부 계통의 요원이 배치되었다.

치국에 의해서 통제되며, 총정치국은 조직비서(김정일) 예하의 조직지도부내 중앙당기관 지도부 13과의(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지도과)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김정일이 조직지도 비서에 취임함으로써 당의 통제를 통한 군사지도권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은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직에 이어 1974년 2월 11~13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대중운동과 같은 선전선동사업을 본격화하여 軍을 포함한 全社會의 지도권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1974년 2월 19일 전국 선전활동가 강습회에서 「전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목표로 한 당 사상교육 활동의 당면한 여러 과제에 관하여」라는 題下의 연설에서 “전사회를 김일성 주의화하자”는 것을 슬로건으로 ① 유일사상 교양, 혁명교양, 계급 교양의 철저, ② 사상전의 추진, ③ 경제선동 전개, ④ 당사업의 체계 등을 주장했다. 물론 김정일의 이러한 선전선동 사업 관련 활동은 인민군대를 예외로 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이것은 오늘 당이 인민군대 앞에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구호”라고 하여 인민군대의 전체 장병들을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로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⁹⁾ 이에 따라 북한은 인민군대내 장병들의 사상교양과 부대관리, 군사장비와

군사훈련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은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를 하나의 核으로 하는 大衆運動이었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를 1975년 초부터 본격화했다. 그는 3대혁명소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조지도체제의 정비를 서둘러 나가면서 소조원에 대한 학습·강습체계의 정비에 더하여 소조원을 “때로는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에 참가시키”기도 했다.³⁰⁾ 3대혁명소조와 선전선동부문을 활성화해온 김정일은 이를 지렛대로 하여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전개를 장악해 오면서 이 운동을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하여 ... 당조직 사상생활에 대한 지도와 밀접하게 결집”³¹⁾ 시켜 나갔다. 결국 김정일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활성화를 인민군 내의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일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인민군 내에 전개하고 이를 지도해 나가면서 基層軍과의 연대강화로 그의 군사지도권 기

29)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제2부 (東京: 東邦社, 1984), p. 281.

30) 「로동신문」, 1988.2.9.

3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제32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273.

반구축을 시도해 왔던 것이다. 김정일은 군대내 정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이외에도 「속도전」, 「오중흡, 김혁 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항일혁명시기에 김일성에게 충실했던 오중흡, 김혁 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을 전개한 것은 항일투쟁전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군수뇌부 내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항일투쟁 참가자 및 이들의子弟 즉 ‘혁명열사유자녀’들의 김정일에 대한 支持擴大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운동들은 사회에서 이미 전개된 운동들을 군에 적용 또는 응용한 것으로서 이는 김정일의 군사경력 결핍을 보완해 주면서 김정일 자신이 군사부문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³²⁾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1974년 2월 8일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전후하여 인민군부로 하여금 김정일에 대해 ‘당중앙’이라는 호칭 표명과 ‘당중앙’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 표시를 공공연히 유도하였다.³³⁾ 1975년에는 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표명이 보다 분명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5년 2월 이용무 총정치국장은 ‘당중앙’이 제시한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방침을 실현하기

32) 이종석, “김정일 인맥 포진도,” 「월간 중앙」 (1992.6).

33) 「로동신문」, 1974.4.25.

위해 싸워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³⁴⁾ 같은 해 10월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오진우는 ‘당창건 30주년’ 記念論文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중앙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며 최후까지 관찰하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반대되는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없는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중앙으로 호칭되는 김정일의 지도에 철저히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³⁵⁾

그런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오중흡, 김혁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 등의 大衆運動은 1979년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³⁶⁾ 특히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후계자로 공식 지명됨으로써 이러한 대중운동은 軍內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4) 「근로자」 (1975.2).

35) 「근로자」 (1975.10).

36)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제2부, p. 281.

2. 1980年代: 強化期

1980년 10월 10~14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의 당적 지위가 공식화되었다. 우선 김정일은 同大會기간 중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권력의 전면 에 부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기구로서 당규약에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서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능과 임무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위원회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관으로서 政策批准 및 決定機關이다. 국가권력 고위층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당정책과 정책입안에는 자문형식의 협의체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국은 비상설결정심의기구로서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한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게 된 것은 권력승계를 위한 김정일의 당적 지위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당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고시켜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37) 귀순자 김정민(북한 대양무역회사 前 사장) 씨의 증언.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 당시 5명(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서열 5위를 점했으나 이듬해 김정일은 김일성 다음의 序列 2위로 격상됨으로써 명목상 북한에 있어서 제2인자적 지위를 과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당규약 제3장 26조)함으로써 당사업의 실무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비서국은 당중앙위원회의 당행정실무집행기관으로서 모든 정책노선과 당의 견해는 이 기구로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상징적 최고정책입법기관이다. 비서국에는 총비서(김일성)가 있고 바로 아래 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비서와 사상개조를 담당하는 선전선동비서가 있다.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김정일이 비서국 비서로 선출되어 이를 직접 관장해 오고 있다.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김정일) 휘하에 여타 부문 담당비서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북한은 민주主義的 意味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들의 권위를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의 그것과 형식상으로 동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김정일이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부총비서격인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직을 장악함으로써 당의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실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³⁸⁾

또한 1980년 10월 14일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일성, 오진우, 김정일을 포함한 총 19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북한의 당규약 제3장 27조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당군사정책 수행 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全體 武力強化와 軍需發展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군사정책을 결정하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하는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일성, 오진우에 이어 서열 3위(1989년 9월에는 서열 2위로 부상)로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북한의 일체의 무력에 대한 統帥權者的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군사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일은 당조직 비서로서 이제까지 군의 당정치기관을 통해서 주로 군사지도권을 행사해 오다가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군사행정 지휘계통 관련 지도권을 추가하게 되었고 그의 군사부문 지도권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은 그의 군사부문 지도권 공고화 노력 차원에서 1982년부터 군부내(무력부, 군단, 사단)에 그의 친

38)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위대·후비대인 3대혁명소조원을 파견,³⁹⁾ 군부의 사상동향 감시 및 군내부의 김정일 지지기반 구축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⁴⁰⁾ 1982년 7월 20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3대혁명소조」⁴¹⁾는 軍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 아래 파견된 김정일의 「친위대·근위대」라고 강조하고 이 조직의 역할 提高 및 活動強化를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3대혁명소조」의 권한을 강화하고

39) 귀순자 김남준(1989년 9월 10일 귀순, 전 북한군 보병 소대장) 씨에 의하면 연대급에서는 연대선전부 지도원이 소조원(대위 또는 소좌)을 겸임하면서 3대혁명운동의 지침만을 받아 점점하는 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40) 안찬일, 「북한인민군의 조직관리방식과 실전능력 평가연구」 (통일원 신진학자 학술용역 보고서, 1991), p. 53.

41) 3대혁명소조는 경제적 성격을 내포한 정치조직으로서 기본목적이 경제파탄을 막기 위한 노동력의 인위적 동원과 김정일의 승계체제 구축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소조원의 성격은 젊은 층의 열성 당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대혁명소조의 책임자는 김일성 권력의 후계자인 김정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당이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것은 3대혁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 빠짐없이 당조직이 있기 때문에 당조직을 통하여서 3대혁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사업을 단순히 하부의 당조직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당중앙이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여 당조직과 3대혁명소조가 협력하여 3대혁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일일보」, 1975.10.22.

그 활동 영역을 넓힐 것임을 강조한 것은 이를 통하여 김정일의 제반 시정활동이 강력히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3대혁명소조의 권한 강화 그리고 활동영역을 軍으로까지 확장한 것은 김정일의 전반적인 지도권 공고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社會統制的 意味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은 그의 領導下에 軍의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군을 유일사상체계하에 혁명전력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군내에서의 그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 인민군 내에서의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전개는 軍의 유일사상교육, 사격술, 지형조건에 적용한 戰法의 완성, 규율확립과 강인한 체력단련 등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김정일이 이러한 운동을 그 자신의 영도하에 활성화함으로써 그의 군사지도권의 확장 및 공고화를 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3. 1990年代: 完了期

1980년대를 거치면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1989년 서열 2위)으로 부상함으로써 사실상 당 차원에서 조직 및 선전선동부문뿐만 아니라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제2인자 위치를 굳혔다. 1990년대 들어와 김정일은 군사고유의 지도권을 단계적으로 移讓받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1990년 5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하여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同格의 기관으로 확대개편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원래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과 함께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존재해왔다(1972.12.27 수정헌법, 제7장 제105조 참조). 이와 같이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 확대개편된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제2인자에 해당하는 제1부위원장(위원장: 김일성)으로 임명됨으로써 군사 고유의 指導權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군 최고사령관직을 이양받았으며 이어서 1992년 4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稱號를 수여받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1993년 4월 7~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마침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은 지난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부각된 이래 13년만에 핵심통치 기

구의 수장 자리 중 하나 즉 軍統帥權을 완전 이양받게 된 것이다.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김일성이 그의 생존시 김정일에게 완전히 권력을 승계하지 않고 김정일의 후견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치하면서 부분적 권력, 특히 군사지도권만을 우선적으로 이양하여 그의 死後 김정일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세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권력은 타 부문보다 승계를 위해서 보다 많은 명분과 실질적인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성 생존시 김정일에게 군사지도권을 완전히 이양하여 경험과 이와 관련한 명분을 충분히 축적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즉 김일성은 그의 생존시 김정일에게 군최고지도자로서의 명실상부한 권력을 이양하여 군사분야의 지휘와 관련한 경력과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군사경력을 결핍한 김정일이 ‘당의 수위(당총비서)’ 및 ‘수령’의 직을 이양받았을 때 북한 군부가 저항없이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김정일의 ‘두리’에서 결집되어 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국방위원장직을 맡고난 후 일년 반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군사분야의 지휘 및 군사경력을 쌓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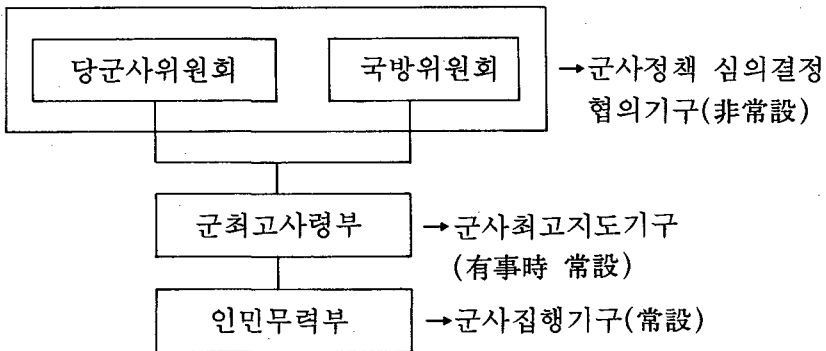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망 전에 김정일이 군사최고지도권을 이양받게 된 것은 그의 승계권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사지도권에 대한 사전 정비작업이 없었더라면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군사지도권의 공백이 예상될 수 있으며, 이것은 김정일의 承繼權力構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은 군사부문에 있어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요 군사 관련 최고위 직책을 김일성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이양받았으며 실제로 군사부문 최고지도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김정일이 권력승계라는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최고 군사지도권을 이양받아 이를 행사하게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북한군부를 장악했다고는 볼 수 없다. 김정일의 북한 軍部掌握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사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의 현황이 어떠한지, 김정일 자신이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통제해 오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第Ⅳ章 北韓의 軍事權力機關과 김정일의 指導權 確保에 대한 分析 및 評價

북한에 있어서 군사권력기관의 수위는 黨의 차원의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와 국가행정기구 차원의 국방위원회로 구성되며, 국방위원회 직속의 인민무력부와 그의 김일성·김정일 정권 보위 관련 3대무력기관(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및 호위총국)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군사권력기관의 양상과 이에 대한 김정일의 指導權 확보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표 2〉 北韓 軍事政策 審議, 決定, 執行機構 體系



1. 당중앙군사위원회

북한 인민군의 統帥體制는 그 제도적 장치가 노동당 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규약 제7장 47조에 명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북한 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당의 최종적이고도 종합적인 통제를 받는다. 당규약 제3장 27조에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한의 노동당 조직(당중앙위 군사위원회)의 명령이 군사부문 관련 북한의 全機關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국가나 국민’의 군대라기보다는 黨의 수위이며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일성의 軍隊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⁴²⁾

그런데 당군사위원회는 고정사무실을 가진 상설기관이 아니며 그 구성원 역시 다른 군사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당군사위원회는 비상시와 전시 등과 같은 특수상황시에 군사부문의 최고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곧 위원장인 김일성 (또는 서열 2위의 김정일)의 결정이라

42)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94), pp. 831~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김일성 생존시까지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서열 2위의 군사위원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군사정책의 최종결정이 김일성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3월 현재 당중앙위 군사위원회는 서열 2위의 김정일을 포함한 15인⁴³⁾의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오진우, 최광, 백학림, 이을설, 이두익, 조명록 등의 당중앙위 군사위원들은 원수·차수급으로 김일성과 같이 항일유격대 출신의 혁명 1세대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항일무장투쟁과정을 김일성의 보호와 지휘 아래 보냈으며 해방 후에도 김일성의 특별한 관심 아래 군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 최대의 충성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혁명 1세대 군지도자들 중 김정일의 최측근으로는 인민군 차수인 백학림, 이을설, 주도일(사망) 세 사람이 단연 선두다. 이들은 항일혁명투쟁 시절부터 김일성을 곁에서 모셔온데다 김정일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이들은 자연히 군부내 김정일의 최대 支援勢力으로서 後援者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

43) 15위원은 김정일, 오진우, 최광, 이하일, 김익현, 백학림, 이을설, 주도일(사망), 이두익, 김두남, 리봉원, 조명록, 김일철, 김하규, 오룡방 등임.

44) 중앙일보사,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 214~15.

인다.⁴⁵⁾

이외 김두남, 이봉원, 김일철, 오룡방 등의 당중앙위 군사 위원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이자 김정일과는 동창인 측근 들로서 이들 역시 군부내 김정일의 支持基盤이 되고 있다.⁴⁶⁾ 김두남은 김정일에게 개별적으로 軍事學을 가르친 인연으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정일의 개별교수·군사보좌역일 뿐만 아니라 군내의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비정규 무력 및 경비병 무력의 현대화에 적극 나서 김정일의 지시를 관철시켜 왔다고 한다.⁴⁷⁾ 이봉원은 조직지도부에서 계속 근무해 1967년 부부장 까지 올라갔으며 바로 이 시절에 김정일과 돈독한 관계를 맺 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1986년 이래 인민군 총 정치국 부국장(국장은 오진우가 겸임)을 맡아왔으며 이 직 책은 군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核心要職이다.⁴⁸⁾ 특히 해 군사령관인 김일철은 김일성 사망 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충성과 효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김일성 대원수 님께서 바라고 의도한 대로 해군력을 불패의 주체적 혁명무

45) 이종석, “김정일의 인맥 포진도.”

46) 朴奎植, 「김정일평전」 (서울: 陽文閣, 1992), pp. 115~16; 고태 우, “(김정일)의 군부와의 관계,” 「京鄉新聞」, 1994.7.15.

47) 중앙일보사, 「김정일」, p. 222.

48) 중앙일보사, 「김정일」, p. 224.

력으로 일당백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⁴⁹⁾고 다짐함으로써 군부에서는 가장 먼저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김일성 유고시 김정일이 이들 혁명 1·2세대들의 측근 인맥들의 지원에 힘입어 당총비서직과 함께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순조롭게 移讓받아 당적 차원에서 북한의 군부를 비교적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는 基盤을 이미 갖추어 왔다고 판단된다.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정권기구 차원에서 군사부문의 최고 首位機關이다. 기존의 북한헌법(1972.12.27 채택)에서는 주석 즉 김일성이 북한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 되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2년 4월 9일 수정된 신헌법은 주석의 군사부문과 관련한 권한을 배제하여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정하였다. 현재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것은 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다. 즉 1992년의 북한 수정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49) 「한겨레신문」, 1994.7.15.

군사지도기관”(헌법 제3절 제111조)이 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헌법 제3절 제113조)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그리고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헌법 제3절 제114조)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는데(헌법 제3절 제112조), 현재 위원장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제1부위원장에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부위원장에는 최광 총참모장이 각각 맡고 있으며 위원들로는 김철만, 이을설, 주도일(사망), 김봉을, 전병호, 이하일, 김광진 등이 있다. 오진우, 최광, 김철만, 이을설, 주도일, 김봉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혁명 2세대의 김정일 측근 인물들이다. 이 중에서 전병호는 비서국 경제담당 비서이자 정치국 정위원인데 非軍人으로서 유일하게 김정일과 함께 국방위원회 위원이다. 김정일은 1973년 9월에 조직비서가 된 뒤 김일성 고급당학교 교장이던 전병호를 1974년부터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불러들여 당에서 함께 일했다. 1976년부터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격으로 부장 겸 비서인 김정일을 사실상 대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⁰ 이러한 사실들은 김정일이 전병호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

이며, 전병호가 김정일 친위세력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인물의 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⁵⁰⁾

이하일 역시 군소장과 중에서는 김정일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이하일은 김두남, 김강환과 같이 당군사부장 출신으로서 김정일의 군에 대한 유일사상 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김정일의 명을 받아 인민무력부의 內部組織을 관리해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당조직지도부 중에서도 인민군을 總括指導하는 제13과 담당부장을 지내면서 북한군 전체에 대한 당적 지도권을 갖고 당군사정책을 집행하면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갖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⁵²⁾ 이하일에 대한 김정일의 특별한 총애는 그의 소장으로의 승진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⁵³⁾ 또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광진은 북한군의 포병전력 향상에 대한 기여로 김일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인민무력부 부부장 중에서는 김

50) 중앙일보사, 「김정일」, pp. 162~63.

51) 양성철, “北韓의 軍部엘리트와 政治,” 「北韓研究」, 제2권 1호 (1991 봄), p. 145.

52) 朴奎植, 「김정일평전」, p. 154.

53) 이하일은 1985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김정일이 특수여단의 대좌급 여단장을 1계급씩 특진시킨 경우로서, 당시 소장으로 승진되었다. 위의 책, p. 155.

정일의 신임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⁵⁴⁾

이와 같이 국방위원회 역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혁명 1세대를 주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김정일의 혁명 1세대가 아닌 친위세력을 포진시켜 相互牽制하면서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와 같이 비상설기구이나 그 휘하에 군사부문의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사령부와 인민무력부를 두고 있다.

가. 최고사령부

당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군사정책 심의를 위한 잠정 協議指導體制라면 최고사령부는 군최고행동지도기구로 되며 有事時에는 북한군의 전투지휘 수행상의 실제적인 군최고집행기구로 된다.

이와 같이 戰時의 軍令權 행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고사령부는 국방위원회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동격으로 병립하고 있으나 法定機關이 아니다.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54) 위의 책, pp. 155~56.

관」으로 推戴되었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부사령관이기 때문에 최고사령부는 사실상 인민무력부 보다 우월한 실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고사령부의 총사령관인 김정일은 인민무력부를 경유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하여 全軍을 지휘하게 된다. 동시에 그는 인민무력부 소속이 아닌 인민경비대(사회안전부)와 민간무력인 노동적위대(당비서국 민방위부), 붉은청년근위대(당비서국 군사부)까지도 指揮하도록 되어 있다.⁵⁶⁾

나.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부터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直屬機關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북한헌법⁵⁶⁾의 수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 개편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서 국방위원회의 산하기관이 되어 있다. 인민무력부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부장 1인과 그 밑에 11명의 부부장⁵⁷⁾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부장 오진우(원수)

55)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pp. 833~34.

56) 1972년 개정헌법에는 정무원이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제8장 109조)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2년 개정헌법에는 정무원의 이러한 군사부문 관련 권한과 의무가 삭제되었다.

외에 부부장으로서는 김광진(차수), 김봉울(차수), 이병욱(대장), 정창렬(상장), 김정각(상장) 등만이 밝혀지고 있다.

인민무력부의 구성상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다. 총참모부는 軍事指揮行政 계통이며, 총정치국은 중앙당군사위원회와 군사부조직지도부 제13과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政治指導 계통이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참모부는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武力의 全般을 총지휘하는 군최고집행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종합적 군사작전 종합계획을 지휘·관리통솔한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는 군종·육·해·공 작전종합국을 비롯 병종별 각 局들과 과학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참모부는 총참모장 아래 여러 명의 부총참모장을 두고 있는데 현재 총참모장은 혁명 1세대인 최광(차수)이며 부총참모장으로는 전재선(대장), 리종산(대장), 장봉진(상장), 전진수(상장), 황철산(상장), 홍계성(상장), 권중영(중장), 리홍순(소장) 등이 밝혀져 있다.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총참모부의 총참모장이 인민무력부장에게 보고하고 인민무력부장은 이를 다시 당군사위원회 위

57) 「世界日報」, 1993.2.10.

원장과 국방위원장을 각각 맡아온 金父子에게 건의하고 그들의 批准과 指示를 받아 총참모부에 하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총참모부에 대한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인민무력부 부장에 있지 않고 총참모장에 있다. 현재 총참모장으로 있는 최광 차수 역시 해방 전 항일 유격대에 가담한 혁명 1세대의 인물로서 김일성의 忠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69년 총참모장직에서 해임되어 숙청된 바 있으나 1977년 4월 재부상하여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1986년 12월 정무원 부총리(제8차 내각)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그는 1988년에 정무원 부총리직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다시 총참모장직에 오르게 된 것이다.⁵⁸⁾

2)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은 군의 당정치사업을 하면서 軍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총정치국 내에는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있으며 이 양대기구가 군을 黨的으로 지도하고 있다. 총정치국의 역할과 기능은 군당조직 집행기관으로서 당결정심의기구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으로 된다. 同 政治機關은 중앙당조직지도1부 제13과(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지도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다.⁵⁹⁾ 따라서 軍總政治局은 직

58) 양성철, “北韓의 軍部엘리트와 政治,” p. 151.

59)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제상 인민무력부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조직지도부 산하 군사부문의 당조직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軍總政治局은 군종사령부, 집단군사령부, 군단·사단·연대·대대에 정치부를 두고 있으며 중대급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군내 정치사업을 통한 軍統制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軍總政治局은 총참모부뿐만 아니라 인민무력부 자체 및 직속기관들에 대한 黨의 指導도 겸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비서로 있는 김정일이 조직지도부 계선을 통하여 軍總政治局을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총정치국장은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가 맡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은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서열 2위의 위원 및 조직지도 비서로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계통을 장악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민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관리뿐만 아니라 총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인민무력부 외에도 김일성·김정일 정권 保衛 관련 3대무력기관(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호위총국)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자신이 首長職을 맡아(국가안전보위부) 그 기관을 직접 통제하거나 아니면 당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장악해(사회안전부, 호위총국)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

해서 기관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정권보위 관련 3대 무력기관

가.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일성·김정일체제유지를 위한 住民統制武力機構로서 金父子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대 원칙」⁶⁰⁾에 근거한 10가지 犯法規定을 마련하여 체제유지를 위

- 60)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②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④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⑧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책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서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한다. 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한 諸 保衛活動을 펴오고 있다. 방첩, 적색출, 국경경비, 對 內外情 등의 사업을 펼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색출된 反黨, 反國家 宗派分子들의 특별관리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이다. 同 기관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데 보위부 자체의 기구체계에 따른 정치사찰 등의 사업과 중앙당조직 지도부 통보과에서 내려오는 특별사업의 집행 등이 그것이다.⁶¹⁾ 여기에서 지칭하는 특별사업은 조직비서인 김정일의 特命에 의한 당간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특별사찰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노동당을 제외한 당조직부가 대신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산하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위나 권한이 막강하여 黨組織思想 부문 다음의 權限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 구성원들은 인민무력부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이며 이들은 김일성·김정일의 지시하에 중앙당 조직지도1부 제7과와 同 기관 자체 당위원회 지휘통솔을 받는다. 현재 부장은 김정일 자신이라고 전해지고 있다.⁶²⁾ 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한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107~24.

61)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62) 귀순자 강명도 씨는 현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조순백 상장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조순백은 인민군 상장으로서 당중앙위 위원이며 제8기 대의원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사, 「북한인명사전」

들의 활동영역은 중앙당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에까지 뻗어 있다. 군내에서도 이 기관은 대대급까지 뻗어 있으며 소총중대 및 소대급까지 지도요원이 임명되어 있다. 군내에서 이들은 외국간첩의 적발과 반간첩작전 계획, 반혁명태업 및 파괴에 대한 예방활동, 부대원들의 정치적 내사 및 유일사상 위반자 색출, 각 요원의 활동감시, 부대의 장비 및 전투준비의 감독, 군사기밀의 보호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처리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⁶³⁾

나. 사회안전부

사회안전부는 그동안 다양한 位相變化를 겪어 오다가 1972년 10월 정식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⁶⁴⁾ 명목상 일반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왔다. 정무원 산하 부서였던 사회안전부가 1982년 4월 5일 제7차 내각개편시 노동당 소속 기관으로 개편⁶⁵⁾되었다가 1986년 12월 29

(서울: 서울신문출판사, 1994), p. 698.

63) 육군본부, 「북괴군 참모업무」 (서울: 육군본부, 1977), p. 39.

64) 사회안전부는 1948년 당시 내무성 산하의 1개 局으로 시작하여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분리독립, 1952년 10월에는 다시 내무성에 흡수되었다가 1962년 10월 사회안전성으로 분리되었다. 「문화일보」, 1994.8.5.

65) 당시 인민무력부와 더불어 사회안전부를 정권기관에서 분리시

일 제8차 내각개편 당시 다시 정무원기구로 환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⁶⁾ 그러나 사회안전부가 정무원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은 북한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로 가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할 뿐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는 사회안전부가 순수한 대내질서나 치안유지 보다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反革命活動을 監視·統制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국가기간산업 시설 공사(핵시설 공사, 갱건설, 발전소 댐공사 등) 및 金父子 관련 비밀시설 공사 등의 광범위한 ‘체제안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부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김일성·김정일 독재정권을 지탱해온 독립된 ‘폭력기관’으로서 당의 직접적인 통제(중앙당 조직지도부 중앙당기관 담당 제9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7월 28일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당·정간부들이 화환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면서 화환의 순서를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정무원 위원회와 부, 중앙기관...” 등으로 호칭한 사실과, 같은 날 「전승 41주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보도하면서 정권기관, 행정기관,

켜 당이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 전환한 것은 정권보위기능을 가진 부서를 당을 관장하고 있는 김정일에 귀속시켜 김정일이 黨政機關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66)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p. 210.

행정경제기관 등과 별개로 ‘사회안전기관’을 호명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사회안전부를 비롯한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안전부는 集團軍의 兵力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노장 빨치산 세대 군지도자들 중 김정일의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백학림 차수를 部長으로 그 밑에 6~7명의 部部長을 두고 있다.⁶⁷⁾ 백학림은 평양에 들어온 뒤 김일성 호위부대 중대장으로 김정숙·김정일의 뒷바라지를 맡아왔으며 그뒤 김일성 호위처장 겸 김일성 수석 부관(1961), 호위사령관(1965) 등 호위 계통과 사회안전성 제1부장 겸 인민경비대 사령관(1969),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1978)직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1961~1969년 사이에 김일성 호위업무를 수행하면서 김정일의 대학시절과 당중앙에서 초기 정치활동을 곁에서 도와 김정일을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바탕을 마련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⁶⁸⁾

다. 호위총국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등장과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護衛事業이

67)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68) 중앙일보사, 「김정일」, p. 217.

강화되었다. 처음에는 노동당 산하의 호위국에서 현재는 평양경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를 포괄하는 護衛總局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호위총국은 호위국, 평양경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위총국장 1인과 그 아래 5인의 부총국장을 두고 있다. 5인의 부총국장은 호위국 담당, 평양경비사령부 담당, 평양방어사령부 담당, 1호부 및 정치안전부 담당 후방담당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서 1호부 및 정치안전부 담당 부총국장은 金父子 호위에 관한 총책임자이다.⁶⁹⁾

호위총국의 주임무는 金父子 安全을 위한 호위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성격과 규모는 집단군의 무력⁷⁰⁾과 후방경리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북한의 국가기구체계 편제상 호위총국은 인민무력부 산하의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기관이며 중앙당 직속기관으로서 同 機關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69)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70) 귀순자 김명철(1993년 7월 귀순, 前 북한 호위총국원) 씨는 그가 입대하던 1976년 당시까지 국가보위부가 맡고 있던 김정일의 호위사업도 호위총국에서 담당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당시 호위총국은 1개 군단(약 4만명) 규모였는데 그가 제대하던 1985년 무렵에는 약 3개 군단 규모로 커졌다고 증언하였다. 「月刊朝鮮」(1994.7), p. 127.

알려져 있다. 즉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호위총국에 대한 지휘·지도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직지도 1부 1과가 호위사업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대하여 호위총국의 보고를 받게되어 있다.⁷¹⁾

현재 호위총국장직은 1970년대 중반 이래 군부 내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및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한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이을설 차수가 맡고 있다. 이을설은 노장 빨치산 세대 군지도자들 중 김정일의 최측근의 한 사람이다. 그는 백학림과 사망한 주도일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최고봉인 당정치국원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특이한 위상을 지닌 인물이다. 특히 김정일의 군사 관련 지시에 소극적이거나 무시하는 군지도자들을 反黨反革命分子로 몰아 숙청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을설 차수이다.⁷²⁾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김정일)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 안전에 항상 깊은 관심으로 기울이고 모든 지성을 다하여 수령님의 안녕과 만년장수를 보장하고 있다.”⁷³⁾ 고 선전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일이 중앙호위

71)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72) 중앙일보사, 「김정일」, p. 218.

73) 신언갑,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다,” 「철학연구」, 제1호 (1990), p. 8.

기관인 同 機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第 V 章 김정일의 軍事部門 指導權 正當化와 軍의 忠誠誘導

김정일은 현재 당중앙위 군사위원(서열 2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등의 군사부문 최상급의 공식직책을 맡고 있다. 이로서 김정일은 군사부문에 대하여 김일성을 제외한 他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지도권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게 된 셈이다. 동시에 그는 당중앙 조직비서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민무력부의 총정치국을 정점으로 하는 군정치부 계통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부장: 김정일), 사회안전부 및 호위총국의 통제로 군부를 인위적으로 掌握해 나왔다.

그런데 김정일의 실질적인 군사 관련 경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취약성은 그의 군사지도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가 됨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正統性을 확보하고 軍의 직접적인 忠誠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 軍事部門 指導權 正當化

가. 「주체의 혁명무력」 繼承者로서의 正當性

조선중앙방송의 논설⁷⁴⁾을 통해서 북한은 “혁명전통에 관한 문제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중대한 문제는 오직 비범한 예지와 기묘한 통찰력을 지니고 주체사상의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수령(김일성)께서 혁명전통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창시함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들은 “우리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해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임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의 혁명전통 위업이 대를 이어 승계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폈다. 이어서 이러한 “수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과 수령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해 나가기 위한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그결과 “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에 의해 이룩된 재보들을 그모습 그대로 영원히 꽃피”나가도록 하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한 인물이 바로 ‘당중앙’ 김정일이라는 사실

74) 「조선중앙방송」, 1982.5.9.

이 강조되었다. 즉 북한은 김정일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새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활짝 꽃피어 나가게 했으며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실속있게 자행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해 모든 성원들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있다”고 선전한다. 아울러 김정일의 “혁명전통에 관한 주체이론은 혁명전통에 관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효율적으로 체계화한 위대한 이론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준 혁명적 기치”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이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指導理念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1980년 10월 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된 이후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 전개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이 “창조적인 사상 이론적 탐구와 여러 단계의 혁명을 령도해 오신 풍부한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완성시켜” 왔다고 하면서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정력적인 사상 이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킨 고전적으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⁵⁾ 그들은

그중에서도 1982년 3월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논문에서는 “주체사상의 창시로부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원칙 그리고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가 체계정연하게 서술되었으며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새롭게 심화발전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⁷⁶⁾ 나아가 그들은 “이것으로 하여 논문은 주체사상학습의 훌륭한 교과서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이론선전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⁷⁷⁾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주체사상의 理論體系가 김정일에 의해 완숙단계에 이르렀음을 과시하여 代를 잇는 後繼者로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유도하였다.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계승과 관련한 정통성을 혁명전통의 深化發展 차원에서 찾고 있다.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의 격전장에서 탄생하시었고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성장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찍부터 군사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시었다”⁷⁸⁾고 밝힘으로써 김정일이 결코 군사부문과 무관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이 군사부문에서 가장 심오

75)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538.

76) 위의 책, p. 539.

77) 「로동신문」, 1982.5.3.

78)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p. 283.

하게 연구해온 것이 김일성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조직영도하신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과 교훈”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군술을 완벽하게 체현하고”⁷⁹⁾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뒤를 이어 항일혁명전통을 가진 북한 인민군대를 지휘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로동신문」社說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당(김정일)은 주체의 혁명무력건설과 그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영도자이다. 우리당은 혁명군대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을 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전도, 인민의 자유행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언제나 군사를 중시하며 군건설 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왔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리론, 주체적인 전법과 령군술을 완벽하게 체현한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의 근본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었다.⁸⁰⁾

또한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김윤철은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관련 決議文⁸¹⁾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무력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79)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pp. 280~84.

80) 「로동신문」, 1991.12.28.

81) 「로동신문」, 1991.12.28.

리론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우리의 혁명무력을 백전백승의 강철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무력이 오늘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역설함으로써 김정일이 북한의 「주체의 혁명무력」 지도자로서 정통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軍指導者로서의 김정일 資質宣傳

북한은 김정일의 군지도자상을 부각시켜 그의 군사지도권 繼承에 대한 정통성을 창출해 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찍부터 김정일의 군지도자적 자질을 誇張·宣傳해 왔다. 1984년 5월 발행된 「김정일 지도자」라는 단행본은 김정일의 군사지도자적 자질과 실천력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同 단행본에 의하면 김정일은 군사학의 ‘천재’라고 하는 나폴레옹과 그를 격파한 러시아의 쿠투조프 장군을 비롯하여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 등 동서고금의 명장들과 그들의 전술전법들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양식적 차이도 비교검토해 보았으며, 그 모든 전쟁의 발생조건과 진행과정, 병사들의 정

신도덕상태 그리고 매개 격전장의 지형조건과 거기서 사용된 병기들의 성능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일은 군사의 영재, 탁월한 군사사상가, 군사전략가로서의 資質을 완성해 나갔다고 한다.⁸²⁾

또한 김정일은 사격술에도 능하여 그 비결을 사병, 지휘관들에게 가르쳐 주어 그들이 모두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도록 고무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사격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어느날 몇몇 일군들과 함께 사격장에 나가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미터 앞 소나무 가지에 못쓰게된 전등알 열개를 매달아 놓게 하시고 총을 드시었다. 거리가 멀어서 전등알은 꼭지만 겨우 보이는데 게다가 바람에 흔들리기까지 하였다. ... 총성이 울릴때 마다 전등알이 차례로 없어졌다. 열발이 다 명중이었다. ... 다음에는 사이 다병 열개가 같은 위치에 세워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총성은 열번 울렸지만 병들은 열개가 다 그자리에 서있었다. 빗 맞았을리 없는데 하고 일군들이 가까이 가보니 칼로 가쁘히 자른듯이 병목만 잘라져 있었다. 그야말로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격술이었다.⁸³⁾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군지도자상과 관련한 이러한 과장 선전 활동은 그가 군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82)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pp. 282~84.

83) 위의 책, p. 290.

들면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 원수로 추대된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의 論說⁸⁴⁾을 통하여 김정일의 탁월한 군사적 지략과 무비의 담력은 일찌기 항일의 총성이 울리던 그 나날에,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울리던 최고사령부의 작전실과 전장의 불길속에서 키워졌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뛰어난 지략, 탁월한 領軍術을 지니고 북한의 혁명무력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영장이며, 군사문제를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위대한 군사의 英才라는 것이다. 김정일이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사상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군건설의 총목표와 방향, 투쟁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과장선전하였다.

또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1주기 「경축 중앙보고대회」(1994.4)에서 최광 군총참모장은 김정일을 “강철의 신념과 의지, 탁월한 전략전술과 뛰어난 군사지략을 지닌 위대한 영장”이라고 추켜세웠으며, 이외에도 김정일의 군사적 자질을 찬양하는 방송이 이어졌다. 1994년 4월 5일 조선중앙방송은 「위대한 영장을 높이 모신 우리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라는 논설에서 김정일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무장력을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심혈과 노고를 다 바쳐왔다”고 밝히고, 김정일의 “현명한 영

84) 「조선중앙방송」, 1992.6.26.

도와 불멸의 업적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영군술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일성 조차도 김정일이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다”⁸⁵⁾고 언명한 바 있기도 하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군 고위층 및 북한의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군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資質을 讚揚하도록 유도한 것은 군경력이 거의 없는 김정일의 군지도자로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함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선출(1993.4.9)을 앞두고 「영장의 예지와 영군술」이란 시리즈와 6.25전쟁 43주를 맞으면서 「천하의 무적 영장」이란 기획물을 각각 보도한 바 있다.⁸⁶⁾

다른 한편으로 군사부문에 있어서 김정일의 실천역량 역시 크게 왜곡 선전되어온 경향이 강하다. 북한은 1976년부터 시행되어온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전쟁연습으로 단정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항시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김정일이 “우리식대로 즉 주체적 입장”에서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85) 「로동신문」, 1994.2.6.

86) 「內外通信」, 第855號(週刊版), 1993.7.8.

강화하는 사업”을 수행했다고 전하고 있다.⁸⁷⁾ 또한 그들은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관문점 도끼살해 사건」을 미국의 도발로 왜곡하고, 이를 김정일이 직접 격멸했다고 다음과 같이 미화하고 있기도 하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하에 것처럼 비약적으로 장 성장화된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킨데서 과시되었다. 1976년 8월에도 미제 침략자들은 소위 「관문점 사건」을 계기로 핵항공모함과 최신예 전투기들을 비롯한 막대한 무력을 조선으로 급파하면서 당장 전면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했으나 조선인민군의 단호한 결의와 위력앞에 꺾이어 뒷걸음치고 말았다.⁸⁸⁾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준전시 상태 선포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은 물론 정전협정기념일(7.27)을 조국해방전쟁에 승리한 「제2의 해방의 날」로 지정하여 그 때까지 전쟁준비를 완료토록 한 것 역시 김정일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라 선전되어 왔다. 이는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선전되어온 김일성의 위기관리 능력을 김정일 역시 소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영웅적 이미지 창출을 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7)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p. 282.

88) 위의 책.

다. 김정일의 軍 實務指導 活動強化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김정일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實務指導活動을 강화해 온 것으로 선전되어 왔다. 조선중앙방송⁸⁹⁾은 김정일이 지난 1960년대부터 북한 전역에 대한 현지도에 나서 지금까지 3백 10여개 공장·기업소와 2백여개 협동농장을 비롯해 주요 부문만 1,350개 단위를 현지도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同 방송은 김정일이 1960년대에 이미 백두산에서부터 휴전선 인근 개풍군 묵송리(墨松里)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을 현지도한 거리는 2만Km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선전 기관들이 김정일의 실무지도 활동내용과 그 파급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그의 지도역량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부추기는 등의 권위창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김정일의 이러한 실무지도활동은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일은 특히 인민군대 政治機關에 대한 실무지도 활동을 일찍부터 펴온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1960~1970년대 「비행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정치부중대장의 임무」,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89) 「조선중앙방송」, 1992.2.13.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부대정치위원회 임무」題下의 김정일의 군부대 談話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군사부문 실무지도 관련 宣傳活動을 더욱 강화한 것은 그의 권력승계 사실이 공식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보도 매체들은 김정일의 공개적 군사행사에 빈번히 참석하면서 현지 실무지도활동을 벌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왔다. 예를 들면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평양시 광복거리에 새로 준공된 어은군인병원을 현지지도했다고 밝혔다.⁹⁰⁾ 그는 어은군인병원을 둘러보고 “병원의 설비·시설들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환자치료 및 병원운영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同放送⁹¹⁾에 의하면 김정일이 공군전력 강화를 위해 1993년 7월 현재까지 2백여 차례에 걸쳐 공군을 현지지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정일의 군에 대한 현지실무지도 내용은 다른 분야의 그것과는 달리 자주 소개되지 않음이 보통이나, 1987년 1월 12일 평양방송은 다음과 같이 김정일의 군사부문 실무지도 내용을 과장하여 전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군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을 소유한 병사들로 키워주기 위해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계신다. 전군이 멸적의 기상을 안고 혼

90) 「조선중앙방송」, 1992.6.14.

91) 「조선중앙방송」, 1993.7.19.

련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던 어느날 이른 아침부터 풍랑 사나운 날 바다에 나오시어 훈련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구분대 지휘관을 부르시어 훈련은 주체전법을 익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계속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면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주체전법들을 구현할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낮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느날 훈련장을 찾으시었다. 전사들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훈련을 하고 있었으나 훈련장의 지형이 험해서 병사들의 호상간격도 맞지 않고 사격동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전사들의 이러한 훈련 모습을 여러시간에 걸쳐 주의깊게 보아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훈련 집행자와 자리를 같이 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한겨울의 찬바람을 헤치며 북부지대 상공을 높이 날아오른 현대의 비행기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비행사들의 훈련모습을 몸소 지도해주시기 위해 앉아 계시었다. 마치 어름위를 미끄러져 가듯 날던 비행기는 차츰 험한 산골길을 달리는 자동차 처럼 들추기 시작했다. 비행사들은 비행기의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비행기는 그냥 들추기만 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조건에 맞는 비행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⁹²⁾

이와 같이 북한은 放送, 新聞, 學習教材 등을 통해 김정일이 군사부문에서 정통한 이른바 ‘세기적인 천재’적 지도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찬양하면서 그가 군사분야에서 내렸다는 지시사항을 홍보하고 이를 관철토록 선동함으로써 그의

92) 「평양방송」, 1987.1.12.

군사지도자로서의 威信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軍의 忠誠誘導를 위한 諸 活動

가. 軍의 士氣振作策 強化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을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김정일의 직접적인 命令과 指示에 의해 軍의 士氣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① 軍원로들의 대거 승진 명령, ② 상훈제정 및 수여, ③ 軍최고사령관 김정일 명의의 「친필서한」 전달, ④ 「군민일치 운동」 전개 등이 있다.

1) 김정일 軍最高司令官의 命令에 의한 軍元老들의 昇進人事 斷行

1992년 4월 23일 북한은 軍創建 60돌을 맞아 軍부내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다. 同 승진인사에서 김정일은 자신이 오진우와 함께 원수로 진급함과 동시에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처음으로 664명⁹³⁾에 달하는 장령급의 昇進을 직접 命令하였다. 그동안 북한군부는 원수, 차수 및 특히 장령을

量産하여 장기독재 권력의 경화된 인사단면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대규모의 장령 승진 인사명령(군최고사령관 명령 0024호)을 내린 것은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親衛體制 재정비 강화와 군사기진작을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⁴⁾

이어서 1993년 7월 19일 김정일은 「군최고사령관 명령 제 0040호」로 6.25전쟁에 참전한 원로군관 및 장령 99명(중장 14명, 소장 8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정일의 이번 장성급 인사는 두번째 인사조치로서 휴전 40주를 계기로 군부내의 혁명 1·2세대 원로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이들을 자신에게 절대 복종케하려는 忠誠誘導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김정일은 同 명령에서 우선 6.25전쟁 참전 군인들의 武功을 치하하면서 이들에게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⁹⁵⁾을 강조했다. 이에

93) 장령급 승진자는 태병렬, 조명선, 김용연, 이종산, 이하일, 이병욱, 이봉원, 이동춘, 장성호, 조명록, 김일철, 김양춘, 김봉을, 전재선, 박기서, 김리창 등 16명의 대장과 28명의 상장, 96명의 중장 및 524명의 소장 등이다.

94)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2.4), pp. 40~41.

95) 「조선중앙방송」, 1993.7.21.

호응하여 7월 21일 승진한 99명의 군원로에 대한 계급장 수여식에 이어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들 군원로들은 한결같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2) 兵士를 對象으로 한 賞勳制定 및 授與

북한에 있어서 또다른 軍士氣振作策의 하나로 상훈제정 및 수여를 들 수 있다. 1993년 3월 김정일은 중앙인민위원회政令으로 「전승 40돌 기념훈장」을 제정하여 휴전 40주를 맞아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한 노병 6000명에게 무더기로 수여함으로써 군최고사령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킨 바 있다. 이어서 1993년 9월 그는 마찬가지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인민군과 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군복무 연한에 따라 수여하게 되는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 제도를 새로 제정 발표하였다. 그 정령내용의 要旨⁹⁶⁾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군사복무를 성실히 빛내이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군사복무 연한에 따라 수여하는 국가표창을 제정”하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군사복무 연한에 따르는

96) 「조선중앙방송」, 1993.9.21.

국가표창 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휴전 후 1954년 6월 要人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특별경비 임무에 모범을 보인 중앙경위부대 근무자들에게 그들의 복무연한에 따라 국가표창을 수여한다는 것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政令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으며, 1956년 6월부터 국가표창 관련 同 정령은 북한군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해 김일성의 지시로 다른 장기복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그결과 국가표창 혜택 병사가 지나치게 양산되어 표창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1975년 경부터 이 표창이 폐지되었다.⁹⁷⁾ 따라서 김정일이 「군복무년한별 국가표창」 제도를 다시 부활하여 1975년 이후 장기 복무한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군내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評價된다.

3) 軍·民一致運動

북한의 군·민일치운동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1991.12.24)에서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후 현역 및 건설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인접 마을이나 관련되는 행정구역에서 兵營生活에 필요한 각종 소품 및 위문품과 부식 등을 지원해 주는데 주목

97)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3.9), p. 23.

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에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인민군대를 지원하며 전체인민이 인민군 장병들을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앞에 맡겨진 군사적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⁹⁸⁾고 말함으로써 군·민일치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군·민일치운동의 일환으로 북한 각지의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 등 각급 경제단위들과 각 학교들로 하여금 해당 黨組織의 指導 아래 북한군 선전을 위한 강연·해설·담화모임과 교양학습모임 등을 빈번히 개최토록 하여왔으며, 또한 벽보·선전화 등의 선전사업을 통하여 북한군을 “성심성의로 더 잘 원호할 것”과 “군·민일체의 미풍을 피워나갈 것”에 대한 선전·선동을 독려해온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들은 특히 각급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협동농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軍·民 일체감 조성차원에서 軍副食 마련과 각종 군대노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로동신문」 社說⁹⁹⁾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정세는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도와주는 풍조를 조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同 新聞은 “군

98) 기병인,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 「로동신문」, 1990.5.16 재인용.

99) 「로동신문」, 1981.4.23~24.

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은 조국의 방선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초소에서 뿐 아니라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사회주의의 건설장에서도 날을 따라 더더욱 활짝 꽃피어나고 있다”¹⁰⁰⁾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1992년 3월 18일 북한은 이러한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인민위원회 명의의 「군·민일치 모범군, 시, 구역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란 政令을 채택하였다. 同 政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북한 인민은 항상 인민군대를 자기의 아들, 딸로 친혈육으로 여기면서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보살피 주는 미풍을 꽃피워 왔으며, 이러한 전통적 미풍의 강화는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혁명주체를 초석같이 다지며 인민대중 중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군·민일치의 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同 사업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군·시·구역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군·민일치의 모범군·시·구역 칭호를 제정하며 칭호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¹⁰¹⁾

이에 따라 1993년 7월 1일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軍·民一致의 미풍을 모범적으로 높이 발양한 평양시 만

100) 동세윤, “군대와 인민은 한가정,” 「로동신문」, 1990.5.14.

101) 「조선중앙방송」, 1992.3.24.

경대구역 등 8개 지역¹⁰²⁾에 「군·민일치 모범군, 시, 구역 칭호」를 수여하였다.¹⁰³⁾ 또한 북한은 방송을 통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의 영도밑에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 1년간에만도 군민관계에서 모범을 보인 1천1백여개의 각급 단위들과 많은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에게 감사를 보내 주시었으며 15개의 시·군·구역이 군민일치 모범군·시·구역의 영예를 지녔”¹⁰⁴⁾음을 밝히고, 그결과 “군민일치의 대풍모 속에 우리 혁명의 주체는 백방으로 강화되고 나라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졌으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군대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국제반동들의 횡포한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의 위업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전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자랑찬 성과는 주체의 군민일치 사상을 가일층 풍부화시키고 혁명실천에 옳게 구현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떨쳐 나가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과”¹⁰⁵⁾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02) 평양시 만경대구역, 평안남도 대천시, 평안북도 태천군, 자강도 성간군, 황해남도 배천군, 함경북도 회령시, 양강도 갑산군, 남포시 강서구역 등임.

103)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2.3), pp. 25~27.

104) 「조선중앙방송」, 1994.4.5.

105) 「평양방송」, 1994.4.5.

이와 같이 북한이 군·민일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것은 인민군에 대한 민간인들의 지원을 증가시켜 경제난으로 인한 후생수준 저하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軍의 士氣를 고양시키기 위함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軍·民一致 운동과 관련한 이 조치는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취임으로 군사 최고지휘권을 획득한 이후 군에 대한 의도적인 정책적 배려를 과시함으로써 김정일 군최고사령관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김정일에 대한 軍의 支持決意大會 및 김정일 忠誠 軍歌 補給

북한은 김정일을 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이후부터 김정일 군사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지지결의대회를 연일 개최하였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김정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老兵’들을 대거 動員하여 그에 대한 인민군의 충성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1993년 5월 29일 평양서 개최된 「전쟁참가자 설화 경연대회」를 시발로 「노병들과의 상봉모임」(1993.7.13), 「전국 노병대회」(1993.7.23~25) 등이 잇달아 열렸다.

〈도표 3〉 김정일 最高司令官 推戴 支持決意 大會

일 시	결 의 대 회
1991. 12. 25	· 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 결의 대회
12. 27	· 평안남도 군중대회
12. 28	· 평양시 군중대회, 철도부 직원환영대회
12. 29	· 인민군 김기엽 구분대 축하집회 황해북도 군중대회
12. 30	·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개성시, 남포시 군중대회 · 인민군 강일웅, 정규함 소속부대 집회 (김정일에 대한 맹세문 채택) · 평양예술인 축하공연
12. 31	·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군중대회 · 인민군 김충식 소속부대 집회

자료: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1.12), p. 26.

「전국 노병대회」는 휴전 40주년을 맞아 북한 최초로 개최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父子와 老兵代表 6천명이 참석하였다.¹⁰⁶⁾ 이날 개막식에서 최광 군총참모장은 보고를 통해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 것”을 독려했으며 강성산이 전달한 노동당 중앙위 축하문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고양, 사회주의 옹호고수, 방위력 강화, 조국통일 투쟁에 앞장설 것 등 노병들의 책임과 임무수행이 촉구되었다. 동시에 이 대회는 평양 이외에도 각도·시·군·연합기업

106) 「조선중앙방송」, 1993.7.23.

소 단위별로 7월 25일까지 잇달아 열렸다.

북한은 「로동신문」社說¹⁰⁷⁾에서 이 대회를 계기로 당과 혁명무력의 핵심역량인 전체 노병들이 혁명정신으로 생활하고 싸워나가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전체 북한 주민들이 「노병들의 충성심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上記의 대회는 김정일의 충성유도와 단결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에 대한 忠誠心 誘導를 위한 보다 노골적인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김정일에 대한 忠誠 軍歌 보급이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이 “전군의 주체사상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인들을 교양할 혁명적·전투적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라”는 지시에 따라 북한군 협주단 창작단들이 군가요들을 대량 창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중에서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운명」, 「내나라에 대통운이 텃구나」 등의 군가는 김정일을 군최고사령관으로 받드는 긍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일장군 위해 목숨바쳐 싸우리」, 「결사옹위하자 김정일 장군」, 「천세만세 모시리」 등은 김정일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것들이다.

107) 「로동신문」, 1993.7.23.

특히 「우리를 보라」라는 제목의 군가는 북한 인민군을 김정일의 私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⁸⁾

총창을 번쩍 발구름 찡찡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의 병사
 규를엔 강철 싸움엔 번개 맞설자가 누구냐
 (후렴)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는 무적의 지도자 동지군대
 ... 중략 ...
 (후렴)
 자유를 향해 평화를 위해 우리들은 총을 멘 정의의 군대
 침략의 무리 덤벼든다면 단매에 쳐부시리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 등으로 추대됨에 따라 군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김정일에 대한 인민군대의 忠誠心을 유도할 수 있는 軍歌를 다량 보급시켜 왔다.

108)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2.7), pp. 14~15.

第Ⅵ章 結 論

이상에서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정일의 군사부문 지도권 형성과정과 군사권력기관 樣相, 이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권 확보상황 및 이러한 군사부문 지도권을 鞏固化하기 위한 제반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드러난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은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있다.

첫째, 김정일의 軍事權力은 正統性을 결여한 군사지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처럼 항일무장투쟁을 바탕으로 한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경력없이 당조직·선전부문 및 당의 군사 관련 부문을 발판으로 군지휘 중심이 아니라 軍統制(政治) 중심의 지도권을 우선적으로 조성해 왔다. 이러한 특성은 김정일이 군사 관련 직위를 이양받아온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1980년 당중앙위 군사위원으로 선출되고 난 후 실질적인 군사지휘관인 최고사령관직으로 추대된 1991년까지도 어떠한 군사지휘참모직을 거친 적이 없다. 그결과 김정일은 군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직에 오름으로써 군최고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경력이라고는 김일성 대학시절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고작인 그가 군사전략·전술을 어떻게 알겠는가”라든가 “정치·경제·문화 등을 지도한답시

고 모두 망쳐 놓더니 이제 군까지 망쳐 놓으려고 한다”는 등과 같은 그에 대한 군내의 각종 유·무형적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組織·機構的 관점에서 김정일의 군사권력은 거의 완벽한 統制體制를 중심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은 북한의 4개 군사권력기구 즉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호위총국을 수평적으로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구의 상층에서부터 하층까지를 수직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들 4개 군사권력기구들은 상호 수평적으로 기능하면서 당(김정일)에 의해서 종합적이고도 전면적인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각 기구의 조직 그 자체도 수직적으로 당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4개 군사권력기구가 수평적으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중 어느 한 기관 또는 몇 기관이 돌출적인 행동을 펼 경우 나머지 기구가 이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당(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경쟁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군사권력기구의 상부조직에서부터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 기구마다 당조직이 배치되어 있어 당에 적대적인 일탈행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統制體制를 갖추고 있다. 결국 당에 의한 철저한 통제를 받고 수평적으로 相互牽制作用을 해오면서 당(김정일)에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권력기구들은 김정일의 군사권력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人事的인 관점에서 북한은 군사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에 김정일의 측근 인사들을 배치시켜 조직의 안정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경쟁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김정일의 안정적인 군사권력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요 군사권력기관에 혁명 1세대들을 예우 차원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에 임명하여 김정일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 아래에는 혁명 2세대들을 배치하여 실무책임을 맡게함으로써 각 조직 내에서 혁명 1·2세대들이 相互牽制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은 전반적으로 과연 安定的이라고 評價할 수 있는가?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에 대한 정통성 결여문제는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해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안전성 자체를 깨트리는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김정일이 군사와 관련한 제도적인 權限 및 職位를 단계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군사지도조직의 새로운 구축 또는 정비 그리고 김정일 名義 또는 指導下의 각종 ‘운동’(3대혁명소조운동, 오중흡, 김

혁 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 등) 등을 받기해 왔다. 특히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난 이후부터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김일성의 정통성 승계라는 차원에서 도출하는 노력을 펴왔다. 동시에 보다 노골적으로 최고군사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자질에 대한 과장선전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諸 조치(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지지결의대회, 김정일에 대한 군충성 가요 보급 등)들을 강화해 오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될 경우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의 정통성 결여문제는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의 軍經歷과 군사적 자질문제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군내의 불평·불만들은 집단적으로 표출될 만큼 조직적이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김정일의 군사지도권과 관련한 군내의 불평·불만들은 北韓軍의 士氣 低下要因은 될 수 있을지언정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자체를 총체적으로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정적 특성을 지녔다고 해서 그의 군사지도권이 반석 위에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김정일의 군사권력을 지탱해 오는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으로 인한 알력으로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김정일의 군사지도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일이 향후 중대한 군정책의 실책을 거듭 범하게 됨으로써 군사지도자로서의 무능을 노정할 경우 이는 군부 자체의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일 軍事權力基盤의 安定性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사지도권 행사 자체를 마비시키는 북한의 군사권력체계의 기능정지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朴奎植. 「김정일평전」. 서울: 陽文閣, 1992.

북한문제연구소 편. 「북한정치」.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79.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9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제32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안찬일. 「북한인민군의 조직관리방식과 실전능력 평가연구」
(통일원 신진학자 학술용역 보고서, 1991).

육군본부. 「북괴군 참모업무」. 서울: 육군본부, 1977.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68.

—————. 「김일성 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67.

—————. 「김일성 저작선집 7」.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79.

—————. 「김일성 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6.

—————.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2.

—————.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김일성 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제2부. 東京: 東邦社, 1984.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1.12), (1992.3), (1992.4), (1992.7).

2. 論 文

고태우. “(김정일)의 군부와의 관계.” 「京郷新聞」, 1994.7.15.

기병인.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 「로동신문」, 1990.5.16.

김경준. “북한외교에 있어 군의 역할.” 「북한학보」, 제16집 (1992).

동세윤. “군대와 인민은 한가정.” 「로동신문」, 1990.5.14.

신언갑. “찬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다.” 「철학연구」, 제1호 (1990).

양성철. “北韓의 軍部엘리트와 政治.” 「北韓研究」, 제2권 1호 (1991 봄).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이종석. “김정일 인맥 포진도.” 「월간 중앙」 (1992.6).

3. 其 他

귀순자 김남준 씨의 증언.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귀순자 김명철 씨의 증언.

귀순자 강명도 씨의 증언.

「근로자」.

「內外通信」.

「로동신문」.

「문화일보」.

「世界日報」.

「月刊朝鮮」.

「인민교육」.

「조국통일」.

「조선중앙방송」.

「통일일보」.

「평양방송」.

「한겨레신문」.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의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關聯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 事例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김정일 리더십 연구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열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研究報告書 94-0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0월 일

發行日 1994년 10월 일
